

## March 16 온유, 십자가를 지고

• 마태복음 5:5, 11:29

**온유한 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입니다.** ‘온유한’에 쓰인 원어는 본래 속임과 착취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무력한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(시 9-10편).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며(속 7:10; 시 68:5, 146:9),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(시 37:11; 사 26:6).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고난과 핍박, 무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. 억압과 고난에 대해 폭력과 복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함으로써 평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.

**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.**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. 사탄은 ‘가만히 있으면 얹잡아 볼 것’이라며 우리를 부추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‘십자가’입니다(고전 1:18).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법을 택하셨고,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‘내게 배우라’고 말씀하십니다(마 11:29). 우리는 ‘섬을 얻는다’에 방점을 찍기 쉽지만, 예수님은 ‘나의 멍에를 메고’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.

**진정한 온유는 ‘자기 부인’입니다.**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고난과 억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온유함은 ‘십자가’와 연관됩니다.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.

**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.**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.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와 방법에 훈련된 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(계 22:5). 땅은 우리가 속한 모든 ‘영역’을 뜻합니다. 온유한 자들은 복된 인생과 가정, 일터, 사역의 현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.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.

나는 온유한 자입니까?

- ① 고난과 억압으로 속수무책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?
- ②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나를 보내신 ‘땅’은 어디입니까?